제 5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한국무용 군무'

2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에서 대성여고 군무팀이 한국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회와 함께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광주나들목 재개통

서울방면 진출만 … 30일 오전10시

동광주나들목 서울·대전 방면 상행선이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통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에서 동광주나들목과 문흥나들목을 통해 서울 방면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순천·부산 방면의 경우 문흥나들목을 통해서만 진·출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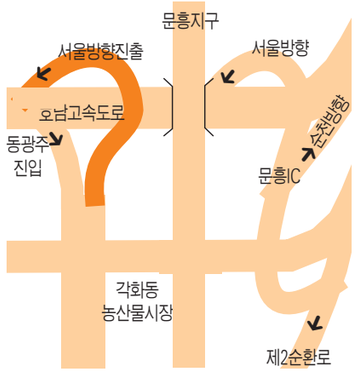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동광주~담양 고서 간 확장공사로 인해 일시 폐쇄됐던 동광주나들목이 30일 다시 개통됨에 따라 오전 동문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광주나들목을, 두암·화순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문흥나들목을 통해 서울 방면 고속도로로 진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동광주나들목 서울방면 개통으로 고속도로 진출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부와 주요노선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플래카드·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광주나들목 서울 방면 진입연결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광주나들목 30일 재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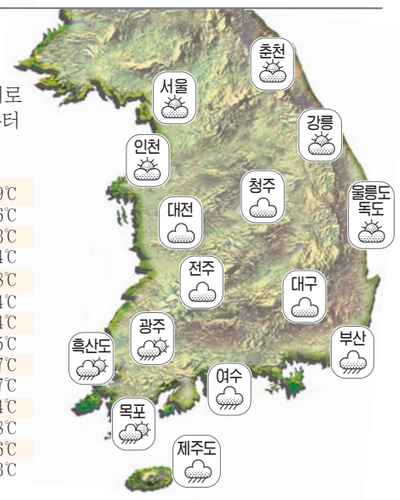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0분 해짐 19시 51분 달뜸 21시 08분 달짐 06시 43분

장마 잠시 안녕~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부터 개겠다.

광 주	비온뒤갬	21/29℃
목 포	비온뒤갬	20/26℃
여 수	흐리고비	21/23℃
완 도	흐리고비	20/24℃
구 례	비온뒤갬	21/28℃
해 남	흐리고비	20/24℃
장 흥	흐리고비	20/24℃
고 흥	흐리고비	20/25℃
순 천	흐리고비	20/27℃
영 광	흐림	20/27℃
진 도	흐리고비	20/24℃
전 주	흐림	21/28℃
남 원	흐림	21/26℃
흑산도	비온뒤갬	17/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3:30 15:17	08:44 20:36
여수	09:56 22:39	04:10 15: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화)	30(수)	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22/30	22/31	22/31	22/31	22/30	23/29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

월드컵 8강 좌절, 주민들 아쉬움 속 일상 속으로

한국팀의 월드컵 8강 진출 꿈이 좌절되자 온 국민이 허탈감에 빠졌다.

지난 보름간 행복했던 '한여름밤의 꿈'을 되새기며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국전이 끝나 아쉬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싸운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식혀준 조별리그전 태극전사들의 승전보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한 16강전을 되돌아보는 등 월드컵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8강 진출시 짜장면 공짜, 무료 음료제공 등의 안내문을 내붙였던 업소들도 이를 떼어내는 등 상가의 월드컵 마케팅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지난 11일 월드컵 개막 이후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한 뒤 출근후 졸음 근무를 했던 회사원도, 날을 새워 영업을 했던 호프집도, 야식 주문에 비명을 질렀던 치킨·피자집도 이제 모두 평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8강' 진출을 한목소리로 외쳤던 27일 새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은 붉은 악마 뿔과 풍선막대, 응원 나팔을 손에 든 4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염원했다.

빗방울이 흩날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우산을 꺼내들지 않고 "대~한 민국"을 외쳤다.

경기 내내 선수들과 한 마음, 한 몸이 돼 뛰었던 시민들은 종료 휘슬이 울리고 끝내 8강 진출이 좌절되자 망연자실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호프집과 각 가정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시민들은 텔레비전에 울음을 터뜨린 차두리 선수의 모습이 비치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원정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성적에 만족하며, '졌지만 잘 싸운'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월드컵경기장 응원전에 참여한 박민철(31·광주 북구 우산동)씨는 "한국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갑작스레 월드컵이 끝나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일반고서도 영·수 심화수업

광주·전남 10곳 2학기부터

올 2학기부터 광주·전남 10개고교 등 전국 74개 일반계 고교에서도 특목고나 대학 수준의 영어·수학 '심화과목'을 가르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고교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부터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74곳과 지역교육청 12곳을 선정·발표했다.

광주는 광주제일고와 광덕고·숭일고·서강고이며 전남은 목포 정명여고·목포 문태고·순천고·순천여고·여수충무고·장성고가 포함됐다. 또 지역교육청은 화순교육청이 선정됐다.

시범학교에서는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일반적인 교과 외에 '고급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 반면 고교 수학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수학의 기본'을 가르치도록 했다.

영어도 심화영어, 영어청해, 영어작문, 영어회화 Ⅰ·Ⅱ, 영어문화권 Ⅰ·Ⅱ(특목고 전문교과) 등으로 다양화하고 '영어의 기본'도 따로 개설한다. 심화·기초 과정은 학생부 성적에 등급을 적지 않는 대신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이수'만 기재한다.

내년부터는 심화과목에 대학과목 선이수제(UP)도 도입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흐린 날씨에 후텁지근

광주·전남지역은 28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개겠으며 이번주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30도로 예상된다.

28일 오전까지 남해안은 30~80㎜, 그 외 지역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조업·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비는 28일 오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약화로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물러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며, 다음달 4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한편 지난 26~27일 보길도 91.5㎜, 완도 66㎜, 여수 33.5㎜, 고흥 32.5㎜ 등 남해안 지방은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양수현기자 yang@